



그레이스미션대학교와 미주복음방송이 5월 7일 오전 9시 30분,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믿음으로 대화하며 함께 살아내는’ 부모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부부의 건강한 동반자적 관계, 건강한 양육의 기초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BC ‘부모교육’ 세미나 개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와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이 5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믿음으로 대화하며 함께 살아내는’ 부모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번째 강의자로 나선 GMU의 학부 학장이자 교육학 박사인 안송주 교수는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 역할과 교육 전략에 대해 나눴다. 안 교수는 “자녀가 지금 무엇을 못하고,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 발달을 위한 교육 전략으로, “부모가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하며, 부모가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델

로 삼아야 한다”며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영아 발달을 위한 교육 전략으로 “아이에게 세심하게 반응을 해주고 기본적인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하루에도 책을 여러 번 읽어 주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3세 이전에는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일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영적 대화의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고 반응해 주면서 일관적이며 논리적인 훈육이 중요하다”며 “그럴 때 아이는 책임감이 생기고 사회성을 갖고 자신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안 교수는 청소년 발달을 위한 교육 전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정체성) 무엇을 해야 하는가(소명)를 확립하

도록 한다”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을 수용하고 남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모 관계가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부부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간다면 건강한 부자와 모자, 부녀와 모녀의 관계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의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GMU에서 진행 중인 CPCI(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Initiat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한인 이민 가정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연령별 자녀 이해와 성경적 가치관 교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토마스 맵 기자

헌팅턴 비치서 7,750명 이상 침례

오션스교회 주최 6월 8일에 열릴 Baptize America 행사 축제제

5월 3일(토)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 해안에서 열린 대규모 세례 행사에서 7,750명 이상이 세례 받았다.

오션스교회(Oceans Church)의 마크 프랜시(Mark Francey) 목사가 개최한 ‘뱍타이즈 캘리포니아’(Baptize California) 행사에는 주 전역의 300개 이상의 교회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프랜시 목사는 “여러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물세례에 참여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모든 주의 지역교회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 땅 전역에서 대규모 물세례가 거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이 세례식은 지난해에 참석 인원이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주최 측은 이를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 행사의 영적인 축매제로 보고 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조앤(Joanne·71)이라는 여성은 “40년 동안 세례를 받는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고 털



‘뱍타이즈 캘리포니아’(Baptize California) 행사에는 주 전역의 300개 이상의 교회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오션스교회

어놓았다. 프랜시 목사는 그녀에게 세례를 주며 “이 물에서 새로운 분성과 새로운 삶으로 솟아오르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뱍타이즈 아메리카’(Baptize America)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미국 전역의 수천 개 교회가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동시 세례식으로 오는 6월 8일 오순절에 열린다.

신미셀 기자 → 2면에서 계속

“북한구원·통일한국 이루고 차별금지법 막을 대통령 세우소서”

11일부터 시작된 ‘국가 3일 연합금식성회’의 둘째 날인 12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담임 김정민 목사)에 모인 성도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장장 11시간 동안 이번 21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구원·통일한국’을 이루고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설 대통령이 선출되고,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되도록 기도했다. 특히 이번 성회에는 태어난 지 한달 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와 어린 여섯 명의 자녀와 함께 참석한 탈북민 가족, 임신한 몸으로 아이 셋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온 목회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송금·환전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남가주 교회 및 단체, 장학생 모집

ANC 온누리 장학생 6/15 마감

2006년부터 시작된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장학회는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ANC 장학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을 장려하고 장래의 크리스찬 지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ANC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ancsf.us)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마감은 6월 15일(오후 11시 59분 서부시간)이다.

지원자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미국주소와 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목회자 자녀 또는 선교사 자녀에게는 가산점이 있다.

지원서는 ANCSF.US 웹사이트에서 구글 폼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성적 증명서, 추천서(지도교수 및/또는 목사), 신앙에 대한 개인 간증(약 500단어) 등을 모두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발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있으며, 수여식은 8월에 진행된다.

지원 자격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생(정규 학생),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학생(정규 학생)

문의: 818 834 7000



제26기 총현 장학생 5/31 마감

총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장학부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

1. 일반 장학금: 기독교 신앙이 돈독하며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 양성, 2. 박태용 장로 장학금: 초급 대학 재학 이상,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 3. 정상우 목사 장학금: 선교사 자녀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육성.

지원 자격은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출석자 ▲정규 4년제 대학 및 신학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이 허가된 자(박태용장로 장학금: 2년제 초급대학 재학생 포함)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

▲프로필 사진(흰색 배경의 최신 사진) ▲학업 성적 증명서 사



본(PDF)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PDF) ▲목사/장로 추천서(PDF) ▲두 개의 에세이: (1) 신앙 간증: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 (2) 비전 선언문: 그리스도와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계획과 비전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마감: 5월 31일(토) 장학금 수여 예정일: 2025년 7월 27일(주일)

문의: scholarship@choonghyun.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6/20 마감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림학준 목사) 장학위원회가 오펜지카를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2025



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원자 또는 부모가 오펜지카를 거주하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가을 학기 입학이 확정된 고교 졸업생이어야 한다.

장학생에게는 1인당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서류 접수 기간은 6월 20일까지이다.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lagunachurch.com/)

문의: 949-380-7777, www.lagunachurch.com

선한청지기교회 장학생 6/1 마감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는 6월 1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12학년(대학 진학 예상자),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교회 웹사이트(https://gsch.org/)를 통

해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테페(OTEFE) 재단 장학생 5/23

오테페(OTEFE) 재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대학(원) 재학생 또는 올해 입학 예정자이며 마감은 5월 23일이다.

미국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국계 미국인 학생, 재외동포 학생, 또는 한국 발전에 헌신하는 비한국계 학생이 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otefe.org) 참고.

호프 장학금 6/6 마감

학생당 \$2,500이 수여되며, 접수마감은 6월 6일(금)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이다. 신청은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부모/보호자의 2024년 소득세 신고서, ▲추천서: 추천인이 직접 작성해 hope_scholarship@bankofhope.com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 ▲학교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비공식/공식 성적 증명서(PDF 파일로 스캔), ▲에세이(PDF 형식)를 제출해야 한다.

미주합동총회, 제 26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 하재식 목사 부총회장에 박경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USA)가 제 26회 정기총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전 15:1-11)란 주제로 6일부터 8일까지 사랑한인교회(하재식 목사)에서 개최했다.

직전 총회장 최순길 목사는 6일 개회예배 설교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자들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총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 26회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 제 26회 정기총회를 6일부터 8일까지 사랑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하재식 목사. © 기독교일보

기 부총회장이었던 하재식 목사(사랑한인교회)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목사 부총회장에는 박경일 목사(예수커뮤니티교회), 신임 장로부총회장에는 박경근 장로(필라델피아 블

루벨 장로교회) 서기 이종희 목사, 부서기 장동익 목사, 회의록서기 윤석재 목사, 부회의록서기 전대영 목사, 회계 강신익 목사, 부회계 최인환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헌팅턴 비치...칠레>에 이어서 주회측은 “이 행사는 상징적이고 전략적이며, 부흥과 국가적인 영적 쇄신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세례’(Baptize America) 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회들을 공동된 신학적 실전, 즉 물세례를 통한 공적인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 대사명의 성취를 추구하는 캠페인이다. 주회 측은 6월 행사가 미국 전체의 회개와 변화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에서 행하실 수 있다면, 어느 주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그리고 미국에서 행하실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 세례’(Baptize America) 캠페인 운영팀은 미 전역에서 6월 8일 운동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 중이다.

프랜시 목사는 과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캠페인을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다.”며 “약 2년 전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지역 교회를 위해 세례를 장려하라’는 환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바람은 오순절을 기독교 세계가 물세례를 기념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고, 그 모임은 광장에서의 담대한 설교로 이어졌으며, 그 설교는 3천 명의 공개적인 신앙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주회측은 현장에서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지역 교회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교회와 연결해 주고 있다.

프랜시 목사는 “우리의 목표는 지역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함께 일하고, 세상에 진정으로 다가가고, 지역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연결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의 수보다 세례받은 사람을 지역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VBS

Senior Vision & Bible School

시니어 비전&성경학교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고, 발견할 기회

기간

5월 29일(목) ~ 31일(토) 9AM ~ 1PM

등록문의

714.871.8320 / 등록비: \$20(재료비 별도)

등록대상

65세 이상 남녀 시니어

강의내용

- 인생 완성학(살롬 김 박사)
- 인생 리부트: 흥해 체험활동(김세나 박사)

선택강좌

- 조약돌 Art
- 손글씨 Art
- 도자기(꽃) Art
- 셀폰 사진 & 영상

오렌지한인교회

ORANGE KOREAN CHURCH

643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2
TEL : 714.871.8320 FAX : 714.871.4809
www.okcrc.org @okcrc.online

KPCA “동성애자 성직 안수 · 결혼 주례 불인정”

해외한인장로회 제49회 총회 ‘성소수자 목회 지침서’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날 ‘미국 장로교(PCUSA)와의 협약 관계에 대한 총회 청원서’가 보고됐다.

이는 서북남노회와 로스앤젤레스 노회에서 최근 PCUSA가 지역 교회들이 LGBTQIA+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PCUSA와 협약 관계인 KPCA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현의안이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성 요청 ▲우리의 입장 재확인 ▲신학적 틀 확장 ▲KPCA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에 대한 지침 제공이다.

이에 대해 KPCA 제49회 총회에서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성 요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동성애 관련 목회적 도움 위원회(2024-2025)’에서 작성한 ‘성소수자(동성애) 관련 목회 지침서’로 갈음

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서는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스러운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성경적 교훈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성직 안수와 성소수자 결혼 주례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의 시무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개정하는 내용의 현의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성소수자(동성애) 관련 목회 지침서’의 요약이다.

I 목회 지침의 기준

2024년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교단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목회 지침을 마련했다.

성경적 입장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사회와 법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도록 목회자들에게 실질적 지침 제공을 목표로 한다.

1. 성경적 결혼의 정의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성경 해석을 고수한다. 동성 결혼 및 성소수자 성직 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II. 성소수자 관련 목회 지침

1. 성소수자에 대한 성경적 입장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

원의 대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 기준에 따라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죄로 간주된다. 본 교단이 인정하는 혼인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한정한다.

본 교단에 속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적 결혼관을 명확히 가르치고, 교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본질을 유지하고, 성경적 결혼관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 교회 행정 및 윤리 지침

교회의 윤리 강령과 일관성 있게 본 지침서를 구성했다. 성소수자 교인의 등록, 성례 참여, 결혼 주례 요청 등은 교회 당회와 노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

어린이·청소년 교육에서 성경적 성·결혼관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성소수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도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야 한다.

4. 법적 고려사항

성소수자 결혼에 따른 교회 시설 사용 및 주례 여부는 지역 법률에 따라 교회와 노회가 판단한다. 미국·캐나다 등 지역별 법 차이에 유의하며, 필요 시 법률 자문을 권장한다.

III. 결론

본 지침서는 교단의 성경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목회자들이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일관되고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 개별 사안은 노회 또는 총회에 자문할 것을 권장한다.

노형구 기자

YouTube 방송 제작 무료 오픈 강좌

5월 17일(토) 1시 30분
글로벌 비전 대학

글로벌 비전 대학(Global Vision University, 대표: 제임스 구 교수)이 초보자를 위한 무료공개 YouTube 방송 제작 오픈 강좌를 준비했다.

글로벌 비전 대학에서는 5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에 YouTube 방송 제작을 위한 강좌를 제공한다. 신청은 웹사이트 (<https://global-vision.university/>)를 통해 할 수 있다.

무료 공개 강좌 후 3주간(5/24, 31, 6/6) 매주 토요일에는 YouTube Studio - ATEM, 프로프리젠터(Pro Presenter) 활용 강좌가 진행된다.

이 특별 강좌는 유튜브 채널 운영의 핵심 기능들을 마스터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기존 채널 운영에 어



려움을 느끼시는 분, YouTube Studio 활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 20분 ~ 3시 50분까지이며, 신청비는 \$200이다. 자체 Studio 제작 참여를 통한 체험 학습을 하게 되며, ATEM, Pro Presenter 활용 등을 배우게 된다.

주소: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문의: 949-667-0264, 714-393-4595 (텍스트 가능)

연세대 140주년 기념 미주 조찬기도회 성료

미주 동문들과 지역사회
위한 기도와 나눔 지속

5월 10일, 미주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서문준)는 연세대학교 개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연세 동문들과 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모교의 발전과 세계 속의 사명 감당을 위해 뜻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설교는 남가주 임마누엘교회의 문두진 목사가 맡아, 마태복음 5장 38절~4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



미주 연세조찬기도회는 개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다.

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목사는 “억울함을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주 연세조찬기도회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미주 내 동문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와 나눔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 헬로십 교회 창립 31주년

포모나에 있는 남가주 헬로십교회(김성계 목사)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5월 18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한인총회 서부 지역회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정재호 한인총회 감독이 참석하며, 열바인온누리교회 김진환 목사가 찬양을 인도한다.

또한, 5월 23일(금) 오후 8시, 24일(토) 오후 6시, 25일(주일 1, 2부) 말씀과 찬양의 교회 담임 김종찬 목

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주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전화: (909) 397-5737



김성계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 및 원로장로 추대 감사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에서는 창립50주년을 맞아, 성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신 이들을 추대하고 선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축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5년 5월 18일(주일) 오후 4:00

■장소: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원로장로 추대

임직 받으시는 분들 [가나다순]

창로 장로

안수집사 취임

권사 취임

김상진

안상현

김계용

윌리엄 유

장남식

김민경

박선우

신형범

이광영

김혜인

박성원

유영애

윤은경

임혜신

장성은

한빛장로교회

VISION153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77회 학위수여식 성료

한국부 박사 10명, 석사 11명 졸업
이위연 박사 철학박사학위 취득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 소재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이 지난 5월 2일(금) 제77회 봄학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50 여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취득하며, 교회와 학교, 선교지 등 속한 사역의 현장을 섬길 준비를 마쳤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한국부는 박사원 10명, 석사원 11명으로 총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수준 높은 논문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성경사역학 철학박사학

위를 받은 이위연(Dr. Peter Lee) 박사는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와 지역교회의 실천적 원리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완성했다. 또한, 목회학, 교육목회학, 교육학 박사학위의 프로페셔널 박사 논문의 경우,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역 현장에 적실한 연구인 동시에 실제적 기여를 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미드웨스턴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학위수여식을 통해 복음 중심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2024년 12월 제76회 졸업식에서 300여 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제77회 졸업생 단체사진. ©미드웨스턴 한국부 제공

졸업식까지 포함하면 지난 한 해 동안 500명이 넘는 졸업생이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1,000명에 가까운 재학생이 수

학 중이며, 특별히 중국부는 지난 겨울 졸업식부터 꾸준히 석/박사 과정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며 양적·질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교지에 있거나 미국 본교 졸업식에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미드웨스턴의 부총장들과 박성진 학장이 함께하는 졸업 감사 예배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130여 명의 학우 및 방문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입학 등 학위과정 문의는 한국부 사무실의 김동규 팀장(Tel.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ks)에게 하면 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 기사 제공



칼라 워십댄스 선교회 LA 방문

5/18(주일) 오전 어노인팅교회, 저녁 밥상교회, 19일(월) LA지역 시카고에서 시작된 칼라 워십댄스 선교회(대표 유미란 목사)가 5/18주일 전후로 LA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곳에서 예배 중 찬양을 드린다. '칼라 Kallah'는 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주님의 신부된 이들이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2011년에 창단하였다. 그동안 미국 여러 교회 또 해외 선교지 소수 민족을 찾아가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중보기도 하는 워십댄스 사역을 섬겨왔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어노

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신경섭 목사) 방문을 시작으로 저녁 예배는 밥상교회(빅토빌, 무디 고 목사), 다음 날 월요일은 LA지역의 노인 대학과 양로원을 방문한다. 유미란牧사는 "단원들이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사역으로 주말 또 주 초 휴가를 내어 LA를 방문합니다. 여러곳에서 워십댄스로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유튜브에서 kallahworship을 검색하면 이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문의: 773-339-1657 kallahworship@gmail.com

월드쉐어 USA 연합 선교음악회 5월 18일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5월 18일 오후 6시 30분 미주 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제2회 연합 선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 모든 수익금은 아이티 빈티트루드니프의 소망학교(교장 다니엘 쏜세 목사) 건축기금으로 전달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하나과이어,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LACC), LA 남성선교합창단, World Share USA 주사랑 여성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남가주의 오월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월드쉐어 대표 강태광 목사는 "음악성과 영성에서 호평받는 합창단들이 모여 선교음악회를 갖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러!는 음악회 주제처럼, 위로를 전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객들에게, 합창단원에



게,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는 아이티 소망학교에 위로가 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제2차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

7월 14일~17일, 콜로라도 미주성결교회 4050 목회자

AEU 미성대학교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며, 차세대 목회자들(4050)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제2회 컨퍼런스는 "다음세대 선교와 목회"라는 주제로 7월 14일~17일(월~목)까지 콜로라도 불데에서 진행되며, 컨퍼런스후 선교적 교회로서 소그룹 모임을 위한 자료도

제공된다. 이상훈 총장, 김상인 목사(음직이논교회), 남빈 목사(홍대뉴송교회), 김의진 교수(AEU 미성대학교)가 강사로 참여하고, 미주성결교회 4050 목회자 선착순 30 가정을 초청한다. 참가비는 \$100이며, 참석시 항공비가 지원된다. 주디 한 기자 문의: 미성대학교 학생처장 서신형 목사(859-351-1338, deanofstudents@aeu.edu)

AEU 미성대학교와 함께하는

제2차 차세대 목회자 부흥 컨퍼런스

Mission, 다음세대 선교와 목회

Speakers

이상훈 총장
AEU 미성대학교

김상인 목사
음직이논교회

남빈 목사
홍대뉴송교회

김의진 교수
AEU 미성대학교

7.14 Mon ~ 17 Thu, 2025
Hampton Inn Boulder-North, CO
미주성결교회 4050 목회자 선착순 30가정
입장비 \$100 | www.aeu.edu/next-gen | www.aeu.edu/next-gen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가정의달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조이스리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는지보다, 환자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마주하는 진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특히,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신 **어머님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14-519-3024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센터메디컬 클리닉
LA동부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송홍우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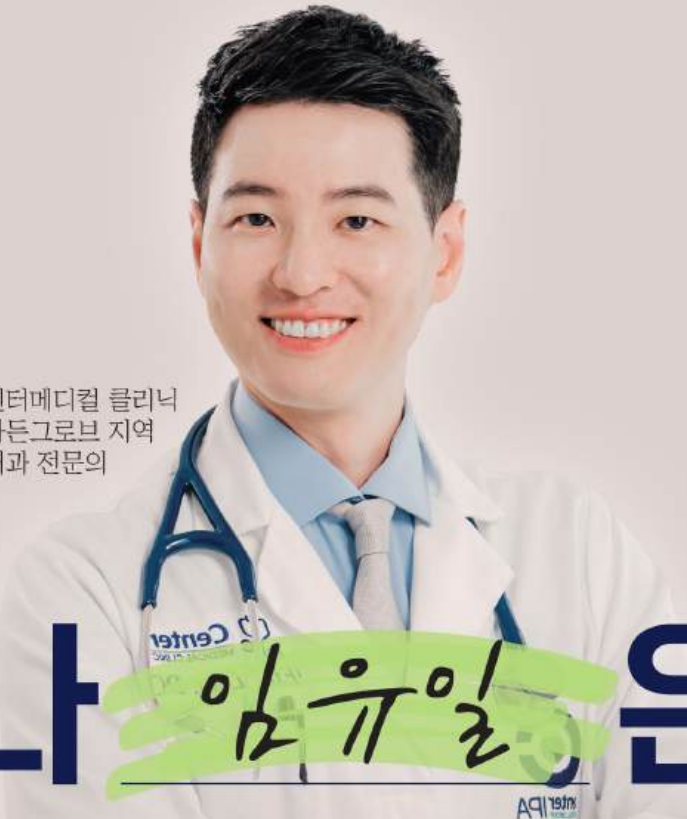
LA 동부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 지식과 진심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26-363-4661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역
내과 전문의

나 임유일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저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이루**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턱관절 문제로 오랜 시간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보톡스**와 **PRP 주사치료**를 통해 편안함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714-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센터메디컬 클리닉
OC 지역
정신과 전문의

나 조제득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1.5세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조울증 같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매, 수면장애, 공황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까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그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저는 지금 **센터메디컬그룹**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점 714-519-3024
가든그로브 지점 714-583-8569
로렌하이츠 지점 626-363-4661

© 센터메디컬그룹

“MZ세대 선호하는 효과적인 설교 시간과 방법, 내용은...”

한국실천신학회(회장 박은정 교수) 제96회 정기학술대회가 5월 10일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에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실천신학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총 14차례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정재웅 박사(서울신대)의 ‘탈교회 시대 MZ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라는 제목의 설교 분과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정재웅 박사는 “MZ세대가 주요 교회 이탈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설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며 “MZ세대는 1981-1995년 출생자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6-2012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이들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2,39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6.4%에 해당하는데, 이는 1955년 전 출생한 베이비부머 전 세대(15%)과 후 세대(1955-1969년, 22.3%), X세대(1970-1980년, 16.1%)를 모두 합한 인구와 거의 비슷한 주류 인구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MZ세대는 민주화와 경제위기라는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통적으로 경험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거부하고, 개인의 주체성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을 추구한다. 또 집단 추구 이념이나 목표



정재웅 박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기보다, 조직이 구성원 생명과 안전 및 행복 등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집단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와 부합하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MZ세대는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 풍요와 안정이 결코 영속적이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함을 알고 있다”며 “먼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당장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플렉스(Flex)나 옴로(YOLO), 탄진팬 등 경제적 과실을 지금 누리고자 한다. 그 이면에는 불안함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경향도 있다. 경제위기로 촉발된 사회적 지위 불안이 타인과 협력을 통한 공존보다 개인의 생존 및 행복을 지향하는 개인화를 조성하고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어린 시절부터 숨쉬듯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은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상호작용성(interaction), 상호연결성으로 대표된다”며 “아날로그 미디어에 익숙한 기성 세대들은 콘텐츠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 MZ세대는 능동적 콘텐츠 창조자이자 검열자이다. 밈(Meme)처럼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편집

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정보 수집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의견 수렴 및 평가 등을 할 때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합하자면 MZ세대가 경험한 민주화, 경제위기, 디지털 혁명은 모두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일상화하면서 개인화된 의식을 강화한다”며 “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MZ세대는 개방적·수평적·창의적·다감각적·다성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인쇄 문자매체의 폐쇄적·수직적·일방향 의사소통 방식보다 선호한다”고 정리했다.

정재웅 박사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의 종교성을 거부하고 탈종교성을 형성시키는 상황 속에서 성장했기에, 이들의 탈종교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MZ세대의 종교 이탈과 교회라는 종교기관 이탈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속칭 ‘가나안 성도’는 2012년 10.5%에서 2023년 29.3%까지 증가했다. 특기할 점은 MZ세대의 탈종교·탈교회 현상 속에서 예배와 설교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신앙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2012년에는 63.6%가 ‘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라고 답했으나, 2023년에는 이것이 28.3%로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TV, 유튜브 등 미디어’는 1.2%에서 19.1%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MZ세대는 설교를 통해 신앙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설교가 신앙적 도움을 주거나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자신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MZ세대 설교자와 청중의 설교에 대한 이해와 평가와 실태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탈교회 현상 완화를 위한 효과적 설교를 도출하기 위해, MZ세대 설교자 200명, 교회 출석 MZ세대 600명, 교회 이탈 MZ세대 3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서 먼저 ‘설교가 교회 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MZ세대 청중들은 설교가 상당 부분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감했고, 신학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설교가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설교라고 응답했다”며 “다만 차순위 응답에서 출석자들은 권위주의적 설교, 이탈자들은 지루한 설교를 선택했다. 이는 출석자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형성돼 있어 설교 내용이나 설교자와의 관계가 교회 이탈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탈자들의 경우 설교 자체가 흥미 있는지와 자신에게 적절한지가 중요했다”고 해석했다.

김진영 기자

[1면 “북한구원·통일한국 이루고”에 이어서]

이날 강사로 나선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는 최근 국제정세가 한반도 자유통일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 전반에서 내구력이 한도에 이르렀고,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한반도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계 대전략은 최대 도전자 중국을 제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오래, 가능하면 영원히 유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지정학적 ‘린치핀’으로 중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

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 일본도 한반도 통일에 반대했으나 최근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상황으로 통일은 어느 날 ‘산사태’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의 사명은 북한동포들을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멍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라며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주의 강대국이라는 통일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세우고 이를 이뤄낼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팎의 대적에 맞서 ‘괴 흘리기 까지’ 싸우며,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요한계시

록 19장 14~15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사탄과 그의 군대 사이에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된다”며 교회 외부에서 핍박을 가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공산주의, 주체사상, 차별금지법 등을, 교회 내부의 강력한 미혹의 세력으로는 용공·해방신학과 퀴어신학, 성경비판신학 등을 들었다.

그는 “사구 기독교회에서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에서 성경비판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18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입법·행정·사법의 전방위 공격을 막아오고 있다. 또한 매년 퀴어행사에 대항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해 수십만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군대에 전쟁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승리의 방법도 알려주셨다”며 “그것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녁집회에서는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요엘 2장 12~14절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목사는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점점 혼탁해지는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며 둘째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며 “심령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오늘 유력한 대선후

보 진영에서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회는 퀴어행사 주최측에 기자회견 장소로 교회를 내주었다”며 “악을 보고 침묵하면 악한 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악이 대세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항하는 자이다. 거룩과 성결로 허리를 동이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다.

이후 기도회를 인도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국가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교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움직임,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그리고 성오염 교과서를 통한 교육붕괴 현실을 ‘국가적 죄악’으로 들었다.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 | | | | | |
|---|--|---|--|---|---|
|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
|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div> |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
|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국교회의 ‘조용한 부흥’
“영적 기류에 변화 감지”



▲영국성공회 예배 모습. ©Facebook/Church of England

최근 몇 주간 영국 전역에서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아울러 성서 판매량 증가, 교회 출석률 회복, 무신론을 표방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 등 영국 사회에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부활절 직후 공개된 다수의 보고서와 일화들은 점점 더 많은 영국인, 특히 교회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계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올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복음주의자 필 녹스(Phil Knox)는 영국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UK)에 기고한 글에서 “단일 통제로 보면 단순한 이상치일 수 있지만, 최근 일련의 데이터는 분명한 추세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경 판매량 증가, 여론 조사 결과, 교회 지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영적 기류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스는 “부활절 아침 제 소셜미디어 피드는 전례 없이 불베는 교회의 모습들로 가득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흥을 일으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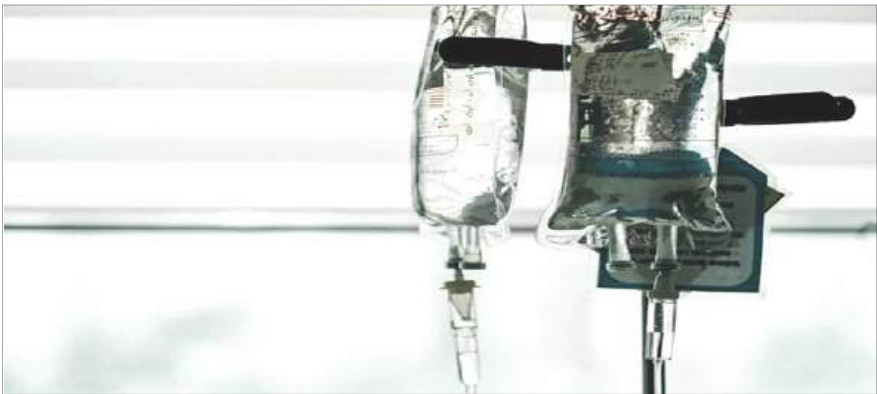
실 수 있다는 믿음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흥을 향한 불꽃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는 조심할 수는 있지만 냉소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회가 새롭게 찾아온 이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한 번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환대받는 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시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복음 전도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며 “수확의 때가 왔을 수도 있다. 열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익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단지 동역자에 불과하다. 지금이 완전한 부흥의 순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첫 열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연국복음연맹은 오는 6월 ‘조용한 부흥’의 실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300명의 새신자들을 심층 인터뷰해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는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암 이겨낸 한 신자의 고백



©Unsplash/Insung Yoon

벨기에 연방의회가 안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식이 명확할 때 서명한(안락사) 의도 선언서가 있다면, 향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2002년 제정된 현행 안락사법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리적·의학적 우려도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리나 드 노프 의원은 “환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할 권리가 있다”며 “이 법은 오히려 초기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특히 치매 초기 환자들이 인지능력 상실 전 안락사를 서두르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 법안은 그들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4년 9월 4일에 의회에 제출됐으며, 의료인과의 상담은 ‘권장’일 뿐 의무가 아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생명윤리 단체 IMABE는 보고서를 통해 “고통이 예측된다는 이유만으로 안락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윤리적으로 위험하다”며 “치매 환자의 고통을 단편적·기능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영적·관계적 차원을 무시한 것이며, 인간이 느끼는 의미와 사랑, 공동체 속의 소속감을 배제한다”고 비판했다. 신경학자 에

릭 살몬 교수(리에주 대학)는 “치매 환자들도 여전히 정서적 교류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이들을 단순히 ‘식물인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태도를 경계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고, 환자가 생전 의향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MABE는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결정적 순간에 외부의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진영은 모두 이번 개정안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라고 경고한다. 벨기에개신교연합회의 한 목회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죽음을 유도하는 대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지만, 신학자들은 이를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 대한 망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개혁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버 교수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 이뤄지며, 자기 파괴적 선택은 자유가 아닌 왜곡”이라고 했다.

한편 영국에서도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사한 윤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크리스천메디컬펠로우십(CMF)은 이에 대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신미셀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3:30 비전센터
주일6부예배 오후 5:30 비전센터
주일7부예배 오후 7:30 비전센터
주일8부예배 오후 9:30 비전센터
주일9부예배 오후 11:30 비전센터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부예배 오후 3:30 비전센터
주일12부예배 오후 5:30 비전센터
주일13부예배 오후 7:30 비전센터
주일14부예배 오후 9:30 비전센터
주일15부예배 오후 11:30 비전센터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10:30) 9-11시
매일 저녁(10:30)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대.청) 오후 7:00
3부 E/M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초.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친구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영아부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친구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금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인도-파키스탄 전면전 치달아... 기독교 지도자들, 중보기도 촉구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유튜브 영상 캡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전면전으로 치달는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계교회에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두 국가의 갈등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2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무장세력을 비판하며 7일 파키스탄 내 테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일련의 공습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키스탄은 이 공격을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는 “파키스탄은 인도가 강요한 이번 전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파키스탄 라호르교구 성공회 수장인 나딤 카프란(Nadeem Kamran) 주교는 신자들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촉구했다.

카프란 주교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규탄한다. 테러리즘이라는 재앙은 수십년 동안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쳐 왔다”며 “양국 정부가 전쟁에 의존하는 대신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다. 전쟁은 더 큰 파괴와 유혈 사태만 초래할 뿐이며,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파키스탄장로회의 르우벤 카마르

(Reuben Qamar) 목사도 전 세계 교회에 기도를 촉구하며, 물 조약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카마르는 목사는 “파키스탄과 인도는 이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도는 60년 된 유엔의 후원 협정인 인더스강 조약의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파키스탄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이는 파키스탄 수백만 명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인도가 강경한 입장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매우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신학자 알버트 몰러 주니어(Albert Mohler Jr.) 박사는 팟캐스트 ‘더 브리핑’(The Briefing)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 사이의 서로 다른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령 인도에서 분할됐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단순히 지리적 이웃이 아니다. 두 나라는 분단으로 갈라진 이웃이며, 이는 주로 종교 문제로 발생했다”고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영토 전체를 주장하지만, 일부만 행정구역으로 삼고 있는 카슈미르는 1947년 분단 이래로 두 나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1989년부터 인도 통치에 반하는 격렬한 반란을 겪었으며, 무장세력은 치안군과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인도는 이 반란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신미셀 기자

美 대법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 즉시 시행 가능”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인정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신병 모집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사실상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지지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천명에서 2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올해 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강혜진 기자

“美 교회, 사역에 AI 도입… 목회자들 설교에는 활용 안해”



인공지능 AI(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전역의 더 많은 교회가 사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2025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종교 및 비영리 부문을 위한 선도적인 결제 및 참여 솔루션 제공업체인 푸시페이(Pushpay)가 작성했으며 엔지븐(Engiven), 체커(Checkr)와 협력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2월 약 8천명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수집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이 80% 증가했지만, 특정 업무에만 국한되었다.

연구원들은 “인공지능(AI) 도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목회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여전히 꺼린다.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AI 사용자 중 신앙 서적, 설교, 목회 관련 아이디어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4분의 1도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AI 활용 사례는 이메일, 이미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콘텐츠 제작 및 편집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AI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패턴은 반드시 놀라운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그중 다수는 AI가 주목받기 훨씬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며, 성령을 통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소명을 추구했다. 따라서 영적 리더십에서 AI의 역할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으로 다가온다”라며 “하지만 일단 메

시지가 공유될 준비가 되면, 지도자들은 이 차세대 도구를 활용하여 그 메시지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했다.

AI 활용에 대한 ‘2025 교회 기술 현황’(State of the Church Tech 2025) 보고서의 결과는 신앙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도적 기술 플랫폼인 글루(Gloo)가 인텔의 전 CEO인 팻 겔싱어가 이 회사의 투자자 겸 회장에서 대표회장이자 기술 책임자로 역할을 확대했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왔다. 겔싱어 대표는 특히 AI를 포함한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루는 약 45만곳 교회, 신앙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 미국의 신앙 생태계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느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겔싱어 대표는 종교 공동체가 소비자용 소셜 인터넷 플랫폼에 참여하는 데 있어 반응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년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의 상당수(86%)는 기술이 지역 사회 내 연결을 증가시킨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시페이 CEO 케니 와이엇은 보고서 발표에서 “올해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와 데이터 그 이상을 제공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하는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며 “기술이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교회들이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에 고무되어 있다.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도구를 교회의 핵심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신미셀 기자

美 테네시주, 공립학교서 男을 男이라 불러도 징계 안 받는다

미국 테네시주가 공립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선호 이름이나 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명시한 법안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지난 9일(이하 현지 시각) 하원법안 1270호(HB 1270)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테네시주 의회에서 하원 77대 18, 상원 27대 6의 큰 격차로 통과됐다. 정당 간 뚜렷한 의견 차가 드러났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교사·직원·계약자는 특정 개인이 선호하는 이름이 그들의 법적 이름 또는 파생어가 아닐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 또한 해당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이 조치는 해당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 또는 징계 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개인은 법원에 구제 요청할 수 있는 소송권도 부여받는다. 또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을 선호하는 이름이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 법의 보호 범위는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주정부 공무원 및 계약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보수 기독교 성향의 범불탄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다”며 환영했다. ADF의 수석 변호사 맷 샤프(Matt Sharp)는 성명을 통해 “누구도 자신이 거짓이라 믿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젠더 이념을 조장하기 위해 학생이나 교육자를 징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테네시평등프로젝트’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요청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일관되고 정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인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 정부를 수많은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캔자스주의 수학교사 파멜라 리카드(Pamela Ricard)는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렀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9만 5천 달러(약 1억 3,4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했다. 또 버지니아주의 프랑스어 교사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은 유사한 이유로 해고된 뒤, 지난해 57만 5천 달러(약 8억 1,100만 원)의 합의에 도달하고 해고 기록도 삭제됐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아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령을 배우며 성령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성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침기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 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독립 애국자 묘지 보존 행사 열려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에 대한인국민회,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가 Angelus Rosedale Cemetery에서 독립 애국자 묘지 방문 및 보존 행사를 가졌다.

남가주교회 관계자는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환경 속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묘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총 31분이며,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과 삶을 바친

귀하신 분들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학생들이 앞으로 이 묘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비석을 닦고 관리하겠다는 결단을 했다. 이 결심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소중한 사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애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맹 기자



대한인국민회,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함께 Angelus Rosedale Cemetery에서 독립 애국자 묘지 방문 및 보존 행사를 가졌다.

시니어 비전 & 성경학교

풀러턴 지역에서 시니어 비전 & 성경학교가 오는 5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3일간 오렌지한인교회(정유성 목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주최측은 “이번 Senior VBS는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고,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니어 세대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신앙 안에서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생 완성(샬롬 김 박사),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이성희 박사), 인생 리부트(김세나 박사)의 및 조약돌 아트, 도자기 아트, 손글씨 아트 등 선택 강좌가 제공되며 등록비는 \$20(재료비 별도)이다.

한편, 오렌지한인교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아침 7:30분에 교회 도서관에서 독후감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첫째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특별 찬양집회를 연다.

등록 문의: 714-871-8320

이번 Senior VBS는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고,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니어 세대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신앙 안에서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생 완성(샬롬 김 박사),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이성희 박사), 인생 리부트(김세나 박사)의 및 조약돌 아트, 도자기 아트, 손글씨 아트 등 선택 강좌가 제공되며 등록비는 \$20(재료비 별도)이다.

한편, 오렌지한인교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아침 7:30분에 교회 도서관에서 독후감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첫째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특별 찬양집회를 연다.

등록 문의: 714-871-8320

시니어 VBS
Senior Vision & Bible School
시니어 비전 & 성경학교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고, 발견할 기회

기간 5월29일(목) ~ 31일(토) 9AM ~ 1PM
등록문의 714.871.8320 / 등록비: \$20(재료비 별도)

강의내용

- 인생 완성(샬롬 김 박사) •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이성희 박사)
- 인생 리부트: 김세나 박사

선택강좌

- 조약돌 Art • 도자기(陶) Art
- 손글씨 Art • 생문 사진 & 영상

“정식제공”

**오렌지한인교회**

“지도자들 리더십과 미국의 안정을 허락하소서”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토마스 맹 기자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SCAN M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TALK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화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교육부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12:00
오전 12:00
오전 7:30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종보기도회
새벽예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오전 7:30

박자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https://www.facebook.com/chkho69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7:3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성경공부(목)
셀모임(금)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11:00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6: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주일 2부
새벽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일예배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6:30(화-금), 6:30(토)
오전 7:30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EM/교육부
새벽예배
목요성구탐구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6:00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수요성령집회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11:00
저녁 7:00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9:30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어른예배
금요일기도회

오후 12:30
오후 3:00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날 12:00
오전 10:00

정용담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교회학교 & 유스예배
수요나눔 교역자
수요종보기도

오전 11:00
주일 오후 12:50
오전 9:30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6:00(화-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2:00
오전 6:00(화-금)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2:00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6:3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6:00(토)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금요철야기도
새벽기도 (월-금)

오전 11:00
오전 8:00
오전 9:00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7:00(화-토)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금요성령기도회
청년부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너눔 코이 모임

오전 1:00
오전 6:00(화-토)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기도회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후 2: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11:45
오전 6:00(화-토)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학교
주요예배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오전 11:00(오정시)
오후 1:30
오전 11:00(오정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81287

김영한 칼럼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刑)은 그가 사셨던 로마시대에 행해진 극형(極刑) 가운데 하나였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반란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로마 시대에 행해진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시대사적 연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그 역사적 사실성이 더욱 명료히 드러난다. 독일 튀빙엔대 신학부의 복음주의 신학 신학자 마르틴 헝겔(Martin Hengel)은 그의 저서 『십자가 처형』(Kreuzigung)에서 역사적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에 대한 시대사적 연구를 함으로써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글은 헝겔의 연구 성과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I.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

초대교회 유대인 사가(史家)인 요세푸스(Josephus)는 로마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디도(Titus) 장군의 유대인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함락의 모든 일을 목격한 장본인이었다. 3세기에 쓰인 그의 증언은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지를 뺀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수를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 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전쟁에서 유발된 잔혹한 행위가 십자가 처형의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십자가형은 통치자에 대하여 반기를 든 반란자들에 대한 형벌로 집행되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 죽도록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반란에 대해 복수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이를 보는 대중적인 가학적(加虐的)인 잔인성을 만족시켰다. 통치자들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고, 죄패를 달아서, 보

는 이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였다.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비인간적인 잔인성과 야수성 등 악마적인 본성의 표현이었다.

주전 3세기부터 하류계층 가운데 지속한 조롱거리로서 십자가(cruz)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헤르도투스의 책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대자료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야만족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처형양식이었다. 로마인들은 야만족이 사용하던 십자가 처형을 야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노예 등 하류계층이나 체제에 대한 반란자들에게 사용하였다. 로마시대의 처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질을 하고, 처형당할 자가 가끔 처형장소까지 형수를 메고 운반하도록 한다. 거기서 그를 양 팔을 벌린 채로 못 박은 다음,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한 나무 못으로 발을 받쳐놓는다.

로마 네로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A.D. 65)는 십자가형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떠한 자의 머리는 꺼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

한 자의 국부는 창으로 찢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絞首臺) 위에서 양팔을 뻗친 채 처형당하였다.”

세네카는 삶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고통에 비교하였다: “고통을 잊게 하는 일, 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상처를 짓누르며, 교수대(絞首臺)에 매다는 일은 가치있는가?” 세네카는 고대문학에서 유래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 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四肢)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물결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못으로 박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 최소한 매질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행해졌다. 먼저 행해진 고문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고통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십자가형은 무엇보다 고통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취하여진 것이다. <계속>

민중기 칼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노래로도 부르고 수백 번 들어서 저절로 외운 성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말씀은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곧 타락한 구조나 체제, 혹은 악한 질서를 성부께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국의 문명, 억압적 구조 그리고 양극화로 신음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의미입니

다. 오래전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억압적 체제의 문제를 다룬 토마스 행크스(Thomas Hanks)의 책명, “하나님이 제3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God so loved the Third World)가 생각납니다. 해방신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3세계보다 북한에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근에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에서는 “제1회 통일신학 논문 공모전”을 열고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민 사회에서 시도된 일이라, ‘기고자가 적거나 혹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기고자가 16명이나 되는 것을 보며 기쁨과 감동이 생겼습니다. 원고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북녘의 우리 동포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아서 이처럼 평화통일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북한선교학교’에 참여하며 읽게 된 ‘예제원에서 회복됐습니다’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명제를 더욱 확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94년 소위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은 분명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 현장에서 생존을 위하여 탈북한 수십만의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 생활로 내몰렸습니다. 인신매매, 강제 결혼, 감금과 폭력, 불안 속의 노동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몰린 자매들이 중국에서 만난 헌신적인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사랑의 감화는 오히려 재난을 축복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양육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예수제자훈련원을 경험한 20여 명의 탈북민 형제, 자매의 간증입니다. 여기서 써 내려간 이야기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당했던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가장 자유롭고 유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때, 지구의 다른 한구석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 폭력과 불법으로 부르짖는 사람의 아픔이 있다는 사

실에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이 또한 나와 같은 언어와 혈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깊은 비극과 비참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이 됩니다. 중국에서 천사처럼 나타나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그들의 피난처입니다. 선교사는 돌베개를 베고 고난의 잠을 자는 이 시대의 야곱에게 임한 천국에 이르는 계단, 곧 베엘의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구겨진 인격과 상처, 잘못된 이념으로 파괴된 우리 혈육에게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복음과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탈북민의 기록은 아픔의 기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기록이 됩니다. 이미 각종 고난과 불합리와 이상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새 생명 가운데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연합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통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 열매는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격에 있습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에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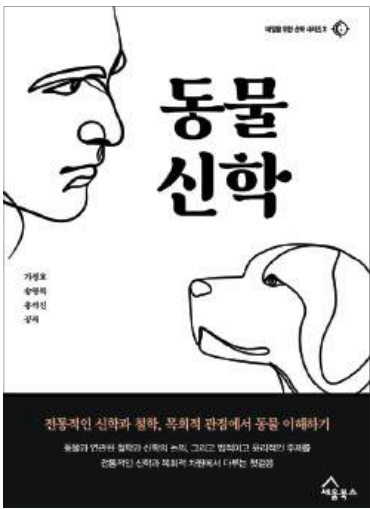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현대인에게 중요한 동물신학

반려동물도 죽은 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동물신학

가정호 · 송영목 · 홍석진 | 세움북스 | 364쪽 | 20,000원

동물에 관한 철학과 신학, 법적 · 윤리적 논의를 전통적인 신학과 목회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 지침서

동물에 관한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품는 노력

선부른 결론보다 더 깊은 탐구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타’ 같은 책!

‘반려동물’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흐름과 이슈를 논하다

피조물의 청지기로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계몽주의 이후 인식과 사고의 중심이 신(神)에서 이성으로 전환되면서, 윤리에 대한 다양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판단을 신학적으로도 요구하면서 생태신학, 식물신학, 동물신학, 공공신학, 페미니즘, 나무신학, 환경신학 등이 등장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뒷간신학(theology of toilet)까지 제안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 중 ‘동물신학’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애완동물은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긴다. 미국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지내는 비율은 70%를 육박하고, 한국도 24%의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애완동물이라는 명칭도 ‘반려동물’로 바뀌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에 전화하면, 평상시에도 애완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주일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책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동물신학〉은 세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신학적·철학적·목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경신학에서 본 동물신학을 쓴 송영목은 광범위하게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서술하며 논지를 펼치고 있다. 동물학 부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논구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동물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없다는 보수적 논리와 함께, 동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특유한 사명을 찾을 수 있다는 유언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다양한 동물을 언급한다. 송영목은 성경에서 동물은 인간과 대등한 피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동물을 사람에게 빚대어 은유적 혹은 신학적 의미로 언급된다고 말했다. 동물은 반려 대상이 아님도 분

명하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반려’의 의미는 3가지인데, 동물을 사람의 친구와 동역자, 반려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에, 함께 지낸 동물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동물에게 기독교 장례 의식을 치르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펫로스 증후군(pet-loss,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내 곁을 영영 떠나가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우울감, 상실감)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반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펫과의 교제보다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고, 동물에 감정을 이입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철학적·법학적 관점의 논지다. 과거 철학자들이 가졌던 동물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동물지』를 통해 500여 종에 달하는 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해 놓은 백과사전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동물은 감각적 존재로서 삶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상응하여 행동하는 존재였다. 동물도 감정은 있으나 이성은 없기에, 이성을 가진 인간은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에 대한 관심은 데카르트의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기계다’라고 했다. 이 명제는 동물이 기계적 작동이 아니라,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작동 기계를 의미했다. 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르는 신적 기계였다.

동물은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같은 요인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리거나, 급격한 생태계 변화로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의 세계관에 의문을 가진 철학자는 마르틴 하이데거였다. 그는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자연과 정신의 대립으로 정의하면서, 인식 주체인 나와



▲고양이. ©픽사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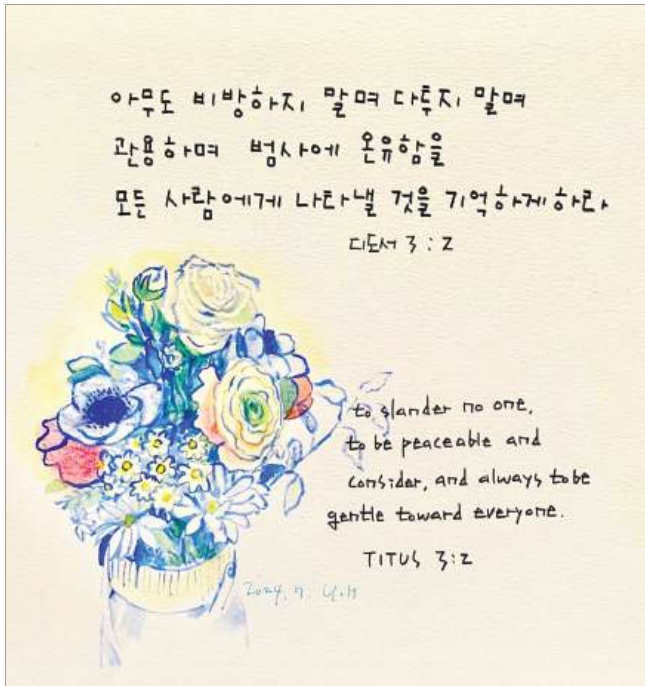
사물을 분리하고 대립하는 위치에 두었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동물은 기계다’에서 ‘동물도 타자다’라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철학적 핵심인 인식의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타자’로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타자의 철학은 결국 ‘우리로 동물이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동물의 존재를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닌, 동물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논자는 인식이 전환된 근거를 구약 성경에

서 말하는 율법에서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에서 찾아왔고, 현대법으로 제정된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했다. 특히 멸종과 고통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동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긴급성을 논했다.

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 한국교회에 바른 신학적 토대와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토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워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부서: 행정 및 전임 부목사 (Full time)

1. 지원 자격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2) 이중언어 가능한 분

(3)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지원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목사-2인):목회자 2인 중에서 한 분은 현재 담임목사

3. 서류제출 및 마감

• 모든 서류를 ocpc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자: 6/21(토)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4. 문의 허재영 목사: (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2)

정치적 순교자 본회퍼, 기독교적으로도 순교자인가?

정치적 정의로 기독교적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정의, 구약성경에 쓰이는 개념
하나님 율법에 의해 규정된 것
공의, 신약성경에 쓰이는 개념
영원하고 보편적인 **선의** 기준
정의, 기독교적 공의 하위 개념
공의 구체적 실천 원리가 정의

민주주의적 정의와 기독교적 공의의 차이는?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미국 저명한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우리 시대에 던졌던 질문이다. 샌델의 정의는 세속주의 정치철학과 윤리학 관점으로 규정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이 규정한다. 그렇기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기독교에도 '정의'라는 개념이 있다. 주로 구약성경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대하 31:20)” 같은 성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정의는 샌델의 철학적 정의와 달리, 인간이 규정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에서는 '정의'란 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공의(righteousness)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공의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바, 영원하고 보편적인 선의 기준을 말한다. 이를 유념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도 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히 불변하는 보편적 선의 원리이고, 정의는 이 공의를 현실 사회에 적용하는 구체적 실천 원리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적 공의의 하위 개념인 기독교적 정의는 공의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을 갖게 된다. 마치 법률이 헌법에 근거해 제정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늘 공의를 살피면서 정의의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공의란 개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런 경향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의 헌법적 정의는 당대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 국민 주권과 인권보장 원리에 어긋나는 폭정에 대해 불복종과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제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시민 봉기와 전투였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폭력 사용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기독교적 공의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가장 뚜렷하게 상반되는 측면이 바로 정의를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다. 기독교적 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의를 위한 폭력의 동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일부 극단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교파처럼 군 복무나 정당한 방어진 수행까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권세자들에 대한 봉기나 테러 행위는 기독교적 공의가 허용하는 정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권세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서, 자칫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역하는 데까지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본회퍼 초기 · 중기 사상, 기독교 공의 바탕 공동체 · 타자 윤리 부각
2차대전 발발 후, 사상 급격 변화**



정치적 정의 구현을 위해 '검은 오케스트라'에 가입한 본회퍼.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반나치 저항단체 '검은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생애에 관한 작품이다.

**정치적 정의 구현 위한 자기희생
하나님의 공의인지 반성할 필요
신앙인들 정의 모색에 오해 초래**

‘비종교적 기독교’로 대표되는 본회퍼 신학의 불연속성

불의한 권세에 대한 폭력 혁명과 저항을 금하는 데는 두 가지 신학적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학정을 펼친 권세자들에게 징벌로 되갚아 주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계명이다.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희대의 폭군이자 학살자 히틀러를 징벌하는 세속적 정의 구현에 자신의 생애를 바친 본회퍼 목사의 일대기를 절절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이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유는 기독교적 공의와 민주주의적 정의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명한 본회퍼 연구자 존 갓세이(John D. Godsey)는 신학자로서 본회퍼의 사상을 크게 초기, 중기, 후기 세 부분으로 나눈다. 본회퍼 신학 초기(1927-1933)는 주로 '신학적 기반 마련' 시기, 중기(1933-1939)는 '신학적 적용' 시기, 그리고 후기(1939-1944)는 '신학적 단편들'의 시기였다.

본회퍼의 초기 및 중기 사상에는 기독교적 공의에 밀바탕을 둔 공동체 윤리, 타자 윤리가 주로 부각된다. 반면 후기 사상에는 기독교적 공의의 율타리를 넘어서는 '비종교적 기독교'의 정의 개념이 대두된다. 초기와 중기 사상에는 확고한 연속성이 있는 반면, 후기 사상에서는 이전 시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불연속성이 확인된다.

1938-1939년 당시 본회퍼 신학, 즉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던 시기 본회퍼의 신학은

기독교적 공의와 민주주의적 정의를 구분하던 원래 입장을 포기하고, 양측의 융합을 시도하는 급격한 태세 전환을 보인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본회퍼를 둘러싼 삶의 정황의 급격한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줬다. 1938년 본회퍼는 히틀러 정권 전복을 계획한 '검은 오케스트라'에 가입했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본회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상황이 도래했던 것이다.

격변에 휩쓸린 본회퍼는 어떠한 이유로든 타자에 대한 강압적 판단과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던 이전의 신학적 입장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적·사회적·세속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신념을 내세우게 된다. “미친 자가 붙잡은 운전대”는 이런 그의 변화된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발언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계는 본회퍼의 이런 신학적 전환과 그의 정치적 정의구현을 위한 자기 희생을 순전한 기독교적 제자도의 표본으로 내세우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과연 성경 중심의 복음적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받드는 것인지 진중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본회퍼의 의거는 분명 세속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기독교계에도 이렇게 정의로운 삶에 목숨을 건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려는 신학계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그 정의가 기독교적 공의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화 <본회퍼> 논조가 그러하듯, 정치적 순교자와 기독교의 순교자를 혼동하는 처사는 정치적 불의에 대한 신앙인들의 정의로운 대응 모색 과정에서 자칫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계속>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 (월)~10 (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예장 합동,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막

첫날 개회예배, 전체 강의 이어져

총회 정체성 지킨 기도의 금자탑
복음 외치고 십자가 말해 왔지만
삶으로 복음과 십자가 증명 필요
어려운 시국 기도로 어둠 쫓아야

예장 합동 총회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5월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개막했다.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로마서 1:16)’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는 각 노회 기수단 입장과 노회장 당선 축하패를 증정한 개막식 이후 오후 2시부터 개회예배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 기도회에는 목사와 장로들의 아내들도 동반 참석했다. 개회사를 전한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1964년 2월 총현교회에서 시작된 전국 목사기도회, 그해 3월 열린 장로기도회는 이듬해부터 전국목사장로기도회로 통합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다”며 “목사장로기도회는 기도의 역사요 민족 복음화와 총회 정체성을 지켜온 기도의 금자탑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지키셨고, 인도하

셨으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전했다. 김종혁 총회장은 “수많은 집회에서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말해왔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십자가를 삶으로 살았는지, 그 복음이 총회원들을 꿰뚫었는지 회개하게 된다”며 “저 자신부터 십자가에 철저히 못박히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과 업적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한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총회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전국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회장은 장소를 제공한 이규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인사한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3일 동안 기도회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 섬기겠다”며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기도회가 민족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는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개회예배는 서기 임병재 목사 인도로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의 기도, 박영만 목사(경주서부교회)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찬양 후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기도불패, 기도가 답

이다(역대하 14:9-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12월 이후 전국 곳곳에 계신 분들이 아프시다고 한다. 이 난관을 풀어야 한다. 후진국에서 태어나 중진국에서 자라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라며 “우리는 1950-60년대 피의 세대를 지나, 1970-90년대 땀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2000년대부터 갈등의 시대가 됐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신앙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단 척결, 동성애 금지, 부패 정치인을 척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며 “기도의 제곱근 법칙을 믿는다. 1백 명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1만 명이 바뀐다. 1천 명이 기도하면 1백만 명이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 7천 명이 모였다면, 제곱해서 4천 9백만 명이 변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제대로 기도하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작년 10월 27일, 11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기도했다. 드론으로 다 찍었다”며 “차별금지법을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들. ©유투브

반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번 기도회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외쳤다. 설교 후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인도로 김용대 목사(영광대교회), 김종학 목사(조례제일교회), 정영기 목사(늘사랑교회) 등이 특별기도한 후 직전 총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축복의 말씀’을 전한 박성규 총신대 총장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

버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며 “하나님께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후 김재원 장로(KBS 아나운서)가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유해석 교수(총신대)가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 신학적 유산’을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이날 저녁집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장창수 목사(대명교회)가 ‘배 안의 사람, 배 밖의 사람’을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할 예정이 다. 이대웅 기자

전국기독교단체인합,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자유민주주의 수호 책임자”

지지 이유: 삼권분립 확립, 악법 저지,
약자와 동행, 청렴·정직, 탁월한 행정 등

전국기독교단체인합과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등 1,200여 시민·종교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

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신동홍 사무총장(새한국 수원지부)의 사회로, 권태섭 대표(민족사랑운동본부), 권경환 목사(전 오산리금식기도원 원장), 이훈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노요한 상임회장(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송용석 공동대표(정의자유실천시민연대), 조규연 공동대표(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서요한 기획위원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이유로 일곱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첫째는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 확립하는데 최적의 후보”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적화된

후보는 김문수밖에 없다”고 했다. 둘째는 “반성경적·비윤리적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최고의 후보”라며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법과 같은 반성경적 악법들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셋째로는 “진정으로 약자와 동행이 가능한 후보”라며 “한센인을 돕는 삶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평가했다. 넷째로는 “청렴하고 정직하다”며 “경기지사 선거 후 남은 선거 자금을 전액 중앙당에 헌납해 목욕이 없음과 청빈한 삶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로는 “경기지사를 두 번 연임하며 삼성반도체 팹팩 유지,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광고신도시 개발 등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고, 여섯째로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좌익이 강조하는 분배는 우익의 성장

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를 깨닫고 즉시 우익으로 전향한 결단력의 사람”이라고 전했다. 일곱째로는 “높은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며 “좌익 시절에도 이승만 건국 통치와 박정희의 경제업적은 인정할 줄 아는 건강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만들어 통과시키고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도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기독교단체인합과 참여 단체들은 “김문수 후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보수 이념에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역량을 가진 지도자”라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정의,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였는데,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은퇴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당뇨가 심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냥 더 늦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 저것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많지도 않은 딱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설을 받기 시작했는데 돈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모기지 \$1,800을 내면 \$1,900 정도가 되니까 뭐 어쩌서 살면 우리들이 못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를 하면 1,800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 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천불씩만 꺼내 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집을 넘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가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니

남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고 자세한 개별 상담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은퇴를 하시면서 금액적으로 충분한 혹은 넉넉한 은퇴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지출을 줄이거나 둘째 인컴을 늘리거나 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데 만약 인컴을 늘리는 방법으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은퇴 인컴이 더 나오면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의 모기지 금액은 한달에 1,800불이고, 이자율이 2.5%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5% 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물론 그 남은 모기지 전체 27만불을 한 번에 다 갚을 수도 있지만, 만약 27만불을 가지고 7% 이상의 이자를 받아 쓰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1,800불이란 모기지를 페이하면서 천천히 집은 페이오프를 하시고, 나머지 더 큰 이자로 남은 돈으로 인컴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예입니다.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팔고 남은 돈 30만불을 만약 어뉴이티에 넣고 고정 인컴으로 받아 쓰시게 된다면 매달 \$25,857불이 100세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만불을 넣고 평생 찾아 쓰는 돈은 827,412불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인컴은 소셜인컴 3,750불에 어뉴이티에서 나오는 \$2,154.75가 더해져서 한달 인컴은 5,904.75달러가 되고, 모기지 1,800불을 매달 낸다고 해도 인컴이 오히려 4104.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불 가까이 인컴에서 모기지를 내도 선생님의 은퇴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쓰는게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갚아 나간다고 해도 더 큰 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또 고정 인컴 어뉴이티는 선생님께서 토텀케어 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달에 꼬박꼬박 2,154.75센트가 들어간 30만불이라는 원금을 다 찾아 쓰기 전에는 자동으로 두 배인 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도 은퇴 플랜으로 더 효과적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빛은 다 갚아 버리고 싶고, 지출은 줄여야겠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아이 백만장자 프로젝트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모님은 학자금 준비

자녀들은 복리저축

세미나

5월 22일 (목), 10am

CONTACT : 626-827-9599 Email: symoonmoneytalk@gmail.com

3435 Wilshire Blvd., 14FL, LA, CA, 11876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지만, 정말 이자 셈을 계산하고 토텀 토포케어 상황에서 도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하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는 방법 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 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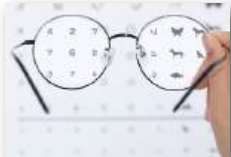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 | | |
|---|---------------------------|---------------|
|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 활성산소 완화 | ● 장내 효소 증가 |
|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 소화기능 개선 |
|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 빈혈, 간 기능 개선 |
| |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 면역체계 향상 |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